

“구례 자연드림파크서 ‘생협’ 가능성 봤다”

아이쿱생협연합회 박인자 이사장



지난 17일 광주일보는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찾은 아이쿱생협연합회 박인자(49·사진) 이사장을 만났다. 박 이사장은 1997년 창립해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아이쿱생협의 원년멤버로, 경남진주생협 이사장을 시작으로,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등을 거쳤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던 가정 주부에서 어느덧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켜 ▲생활의 안전 ▲사람중심경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아이쿱생협 시스템 전반을 운영하는 수장이 됐다.

박 이사장은 시종일관 생산자·소비자, 공공성, 균형 발전, 윤리, 공정 등을 강조하며, 아이쿱생협의 토대와 역사, 향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농수축산물의 보고인 전남에 정착한 후 4년여의 기간을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구례의 경험은 아이쿱생협의 또 다른 일종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에 불과하다. 80% 이상이 지역 출신이고, 최저임금 역시 법정기준보다 1.2배 높게 책정했다. 연간 매출이 1200억원에 달하며, 지역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공헌하고 있다. 최근 2단지 5만7000㎡ 부지에 콕축산(주), 순천우리밀제과(주) 등 6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하고 구례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남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보고다. 그만큼 생산량도 많은데, 가공, 유통 등 2차, 3차 산업이,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전남의 농수축산업에 대해 조언한다면.

▲전남은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친환경 농업이 활발한 곳이다. 특히 구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군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도시로 선포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고 있다. 이에 구례자연드림파크

의 중요한 과제다.
-1997년 출범해 벌써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는데.

▲아이쿱생협은 처음에 6개의 지역생협이 모여 시작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 98개의 지역조합이 함께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27만명의 소비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200여 명의 생산자와 교류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직원은 3700명, 매출액은 5538억 원으로, 사업액 기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2015년 4월 밀단백질까지 100% 우리밀, 2016년 5월 화학용매 걱정 없는 압착식유유, 2016년 11월 발암물질 걱정 없는 안심 캐러멜시럽, 2017년 4월부터는 모든 축산물을 Non-GMO 품으로 키워 축산물 및 우유, 요구르트 등의 가공식품을 출시하고 있다.

-괴산에도 구례와 같은 자연드림파크를 곧 개장한다.

▲전국의 7개 물류센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북 괴산에 괴산자연드림파크를 오는 10월 오픈할 예정이다. 괴산자연드림파크 1단지는 약 2만3801㎡의 부지에 영화관, 회의장, 비어락하우스, 레스토랑, 카페,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식품검사센터를 운영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곳이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 도시와 지역의 연결, 일터와 삶의 공존이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맛나는 지방도시를 가능하게 한다. 시작은 아이쿱 구성원이었지만 지금부터 자연드림파크의 가능성과 발전은 현재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명소가 된 자연드림파크가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오는 25일 지리산호수공원 오트캠핑장에서 열리는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에도 많은 지역민들이 찾아주셨으면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창립멤버로 활동 시작...21년만에 책임자로

구례, 17개 생산공방·물류센터·9개 문화시설 갖춰

지역청년 등 500여명 고용...지난해 매출 1200억원

생산·소비자 만족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노력

크 인근에 친환경재소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친환경육묘장, 유기순환센터,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해 친환경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의광 전남’ 슬로건과 아이쿱생협의 ‘속까지 진짜’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나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을 연결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농수축 관련 6차 산업이 실제로 미래 농수축산업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아이쿱생협을 설명해준다면.

▲초기 지역생협들은 협동조합 사업체 운영이라는 경영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스마트 팜 농장을 조성해 정밀농업 분야에 대한 교육과 농기계 교육, 농산물 마케팅 교육도 이뤄진다. 과정 중 재배한 농산물은 로

력했다. 그것이 100개의 지역조합과 230개의 자연드림매장을 운영하는 원동력이 됐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는 애초의 약속을 지키면서, 현재는 친환경먹거리 생산을 넘어 안전한 생활용품까지 구입 할 수 있는 안심생활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라면공방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금이 절반, 생산자들의 투자금이 절반이었다. 라면 소비가 늘수록 우리밀 재배자가 증가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라면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라면공방의 대표와 이사회는 우리밀 생산자들이다. 생산자들의 삶이 나아지고, 미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농어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을 지지하는 의식 있는 소비자를 확대해 가는 것도 아이쿱생협

농협광주본부, 청년창업부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오는 24일까지 청년창업농 육성사업 일환으로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농업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전국 만 40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설원예(딸기·채소 등) 중심으로 진행되고 향후 축산, 화훼 등 분야로 교육 과정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팜 농장을 조성해 정밀농업 분야에 대한 교육과 농기계 교육, 농산물 마케팅 교육도 이뤄진다. 과정 중 재배한 농산물은 로

컬푸드 또는 하나마트 등을 통해 별도의 브랜드로 납품되며 판매수익금은 교육생들에게 환원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9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6개월 합숙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일수 본부장은 “귀농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파종부터 수확, 유통 노하우까지 원스톱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며 “현장과 동일한 조건의 농사체험과 전문농업인의 기술지

도는 농업을 처음 접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의는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031-659-3641)에서 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nhparan.com)에서 양식을 내려 받은 뒤 작성해 메일(nhparan@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 금리인상 달러화 강제 약제 속

미·중 무역갈등 해소 기대감 높아

남북경협·계약주 등 단기 대응 유효

신흥국 증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일 터키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로 신흥국 리스크가 추가됐다. 터키의 경제 기초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터키의 미국인 목사 구속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터키 간 대립이 격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터키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터키 금융위기 우려로 연결되면서 리스크를 비롯한 루피(인도), 위안화(중국)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해 신흥국 위기를 확산했다.

국내증시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증시에 연동되며 2250포인트 밑으로 하락했다. 올해 하락률이 높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원유수입금 ▲경상수지적자 ▲글로벌경기환경에 민감한 국가 ▲중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국가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상수지흑자국가이고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경기 민감한 산업구조와 중국이 제 1무역국이라는 점에서 하락률이 높았다.

또 중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면서 중국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한국 비중은 감소했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투자비중 조정 등으로 수급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여러모로 지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께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왕쑤위 원(王文文)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방북할 것이라는 내용이 게재됐고 미국에서는 데이비드 밀패스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이 오는 22-23일 이틀간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간 경제와 무역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협상재개가 나온시점이 중국의 최정상급 비공개회의인 베이징다이어 회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중국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내부의견을 조율하고 협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다만, 중국상해종합지수와 심선종합지수가 지난 16일 반등 이후 17일 1% 넘는 하락세를 보인 점은 시장이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아직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부담이라 하겠다.

오는 22-23일 미·중 간 실무자급 무역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지만 복잡한 양국간 현황을 타결하기에는 실무자급에서는 역부족이고 양국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무역분쟁에서 대립국면에서 협상으로 다시 진입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반주에도 미·중 무역분쟁, 터키발 신흥국위험, 미국 금리인상 지속으로 달러강세지속, 반도체경기 고점론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모멘텀에서 찾아본다면 남북경협주, 엔터-콘텐츠, 미국 소비자재수출 관련주,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추격매수보다는 핵심주 중심으로 저점매수 후 상승시 매도하는 단기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틸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